

꿈바당편지

한 시간 독서로 누그러지지 않는 걱정은 결코 없다

I've never known any trouble that an hour's reading didn't assuage.

- 몽테스키외 -

6월의 꿈바당은 매실 익어가느 소리가 아이들 탄성과 섞여 조금은 소란스럽습니다.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솔방울'이 아이들의 장난감이었다면, 늦은 봄부터 초여름까지 아이들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람에 후두둑 떨어지는 '매실'입니다.

잔디광장에 떨어진 매실을 발견한 아이들의 반응은 조금씩 다릅니다.

입으로 가져가 맛을 보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신맛에 놀라 던져버리는 아이들,

매실을 축구공 삼아서로 패스하며 발로 차는 아이들,

멀리 있는 엄마를 불러 같이 줌는 아이들,

아예 나무를 흔들며 대며 나무 위에 있는 매실까지 탐내는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을 꿈바당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아이들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엄마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도서관 직원들도 매실을 어찌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익기 전에 따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대로 놔두고 자연적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따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지, 매일 매실나무에 물려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고민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꿈바당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다가 중요한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복도를 뛰어 정원으로 뛰쳐나갈 때는 정말 그럴만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몇의 아이들이 데스크에 근무하는 선생님의 눈에 포착이 되어, '췌' 하고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지만 이미 선생님의 미소 속에는 『도서관에 간 사자』의 한 장면으로 그려지며 아이들이 뛰쳐 나간 저 너머의 시간이 궁금해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꿈자람책방'으로 가서 야외 정원이 한 눈에 들어오는 커다란 유리창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림책에서 살아 움직이는 주인공처럼 언제나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은 이용자들과 한 뼘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산책은 다녀오셨나요?

하늘은 한번 쳐다보셨나요?

점심시간, 식욕은 없고 마땅히 갈 곳도 없으시다면 오늘은 꿈바당에 오셔서 가볍게 산책하고, 기지개를 켜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한 시간만 책을 읽어보세요. 한 시간 독서는 모든 걱정을 가만히 누그러뜨려준다고 하는 '몽테스키외'의 이야기를 백번 동감하는 일인으로서 살며시 꿈바당도서관으로의 '치유산책'을 추천합니다.

참, 꿈바당 매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식이 궁금하시면 도서관에서 만나요.

6월 매실이 익어가느 꿈바당에서



꿈바당책장

서평

시집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문태준(시인)

문학동네시인선 101 문태준 시집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관계인 때가 있고, 또 어느 때에는 그렇지 못한 관계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환한 등불/ 남을 온기/ 움직이는 별/ 멀리 가는 날개/ 여러 계절 가꾼 정원/ 뿌리에게는 부드러운 토양/ 풀에게는 풀여치/ 가을에게는 갈잎/ 귀엣말처럼 눈송이가 내리는 저녁/ 서로의 바다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파도/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 날마다 석양/ 너무 큰 외투/ 우리는 서로에게/ 절반/ 그러나 이만큼은 다른 입장”

이 시는 시집에 실려 있는 「우리는 서로에게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등불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온기가 되기도 하고, 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때의 우리 사이는 뿌리와 토양의 사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서 그럴 때에는 둘 사이에 높은 파도 같은 것이 생겨나기도 하고, 토라지고, 화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것처럼 좋지 않을 때의 우리 사이는 잘 맞지 않은 외투를 입은 것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이가 좋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절반이고,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은 여름날의 부채와 같은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감정은 사랑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 산바람이나 바닷바람과 같은 바람을 만들어줍니다. 골짜기의 골바람이나 바닷가의 해풍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분을 새소리처럼 혹은 구름처럼 높고 설레게 해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은 그 사람의 앞에 하나의 분수처럼 서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름날의 분수처럼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뒷모습이 되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키운 밭 싹이 되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바닷가에 핀 해당화가 됩니다.

“엄마는 나한테 가랑잎 같은 잔소리를 해요/ 그래도 나는 엄마에게 쪼그만 가랑잎이 되어요/ 엄마 무릎 아래/ 잠이 올 때까지 가랑잎처럼 뒹굴어요”

이번 시집에는 동시가 몇 편 실려 있습니다. 이 시는 「동시 세 편-가을」이라는 시입니다. 동심으로 지은 시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동심입니다. 동심은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잘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에 엄마로부터 꾸중과 잔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엄마에게 가랑잎 같이 귀엽고, 소중하고, 어리고, 장난기가 많은 아이입니다. 엄마 무릎 아래에서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자장가를 들으면서 우리는 사르르 단잠에 빠져듭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가졌던 맑고 밝은 마음을 늘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받은 사랑을 나의 아이에게 나눠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태어난 곳이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태화2리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산뿐인 마을이 저의 고향입니다. 산골아이로서 염소, 강아지, 토끼와 함께 자랐습니다. 논과 밭과 작은 개울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바다의 색깔도 곱고, 모래가 깔린 해변도 좋습니다. 해녀들이 깊고 푸른 바다에서 캐오는 것들도 신비롭기만 합니다. 제주도의 섬들을 자주 가보았습니다. 제주도에 오면 올수록 나는 제주도의 바다가 내 어릴 적 놀았던 동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시도 짓게 되었습니다. 산골아이였던 제가 이제 바닷가아이가 된 것입니다.

“물고기들의 입이 바다의 입구예요/ 해초들의 잎이 바다의 입구예요/ 선창가의 갈매기들이 바다의 출구예요/ 저 모래밭의 조개비들이 바다의 출구예요”라고 시 「바다의 모든 것」에서 썼습니다.

시집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를 통해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만나는 새로운 사색의 신성함, 때때로 맞게 되는 벽 같은 고독,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하려는 높은 기다림, 빛나는 시간에 핀 꽃의 입맞춤, 너그러운 마음인 자애의 넓음, 다가올 내일의 약속과 기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더 멋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문태준(文泰俊)

1970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국문과와 동국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다.

199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시 「처서(處暑)」와 9편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시집으로

『수런거리는 뒤란』, 『맨발』, 『가재미』, 『그늘의 발달』, 『먼 곳』,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등이 있다. 유심작품상, 노작문학상, 미당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동서문학상, 서정시학작품상, 애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어제 읽은 책 ①

까불지 마!

강무홍 글 / 조원희 그림 / 논장 / 청구기호 [그림책방 813.8 강36기]



까불지마! 자주 악해지는 순간 내 마음 속 “스탑”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가 있다.

아이들은 더 그렇겠지.

용기가 없고 내가 질 것만 같아 두려울 때, “까불지마~~!” 하고 크게 호통을 치면 뭐든지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 같다.

엄마가 가르쳐 줬지만 엄마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 주문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도 늘 머무는 질문 일 것 같아 웃음이 난다.

그림에서도 주인공의 마음이 잘 나타난다.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그림을 보는 재미도

놓치지 않은 유쾌하고 즐거운 책이다.



어제 읽은 책 ②

점

피터 레이놀즈 글·그림 / 문학동네 / 청구기호 [그림책방 843-레68지]



어린 시절 나도 미술엔 영재병이었다. 미술시간만 되면

어디 아픈 척이라도 해서 교실에서 도망치고 싶던 마음뿐이던

나를 꼭 닮은 주인공, 베티의 이야기다.

미술 시간이 너무 너무 싫은 베티가 붓을 내 던지듯 도화지에

내리꽃이 찍혀버린 점을 한참 내려다보던 선생님은 베티에게 이름을 쓰라고 하고는 멋진 액자에 베티의 그림을 넣어 교실에 걸어둔다. 그제서야 베티는 ‘점’ 찍이라면 얼마든지 더 멋지고 근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수많은 ‘점’ 작품들을 그려내기 시작한다. 얼마 후 있었던 학교 전시회에서 베티의 다양한 ‘점’들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심지어 ‘베티처럼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아이’까지 등장한다. 베티는 곧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자신에게 해 주었던 것처럼 근사한 마음을 선물한다는 내용이다. 말이 선물이지, 내게 그런 선생님이 계셨다면 나는 화가를 꿈꾸지 않았을까?

시선에 관한 이야기. 나는 이렇게 이 책을 읽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베티의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살면서 만난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남은 적은 있을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그런 어른으로 살고 있는 걸까?’

아이들에게만 결이 고운 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고운 점을 발견해 줄 만큼 나의 시선은 따뜻한 지 나에게 계속 질문하게 되었다. 나도 한번쯤은 따뜻한 이웃이어야지... 싶다. 같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만큼 대단한 일도 드물 것 같다.

스스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는 것, 어른들에게는 자신도 이미 꽤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것이 칭찬과 용기의 힘이 아닐까 한다.

어제 읽은 책 ③

리옹, 예술이 흐르는 도시

구지원 글 / 출판 삶창 / 청구기호 [꿈자람책방 982.602-구78리]

엄마의 재봉틀 소리는 내가 잠결에 느끼는 엄마의 존재감 같은 것이었다. 그 소리를 마치 자강가처럼 들으며 잠이 들곤 했다. 당시, 자신의 두 발이 자신의 삶을 살아내보다 자식 키우는 데 다 쓰일 것이라는 걸 엄마는 알았을까? (중략) 가까이 여섯 남매의 신발이 되어온 엄마. 누구나 그렇듯 ‘엄마’하고 부르면 나도 가슴 가장 깊은 곳이 메어온다. 어려서 나는 머리에 과일을 이고 장사 나가는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서 울었다. 커서도 엄마 등을 보는 일은 여전히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자식들에게 편안한 신발을 신겨주는 동안 그녀의 아름다움은 오래된 신발처럼 낡아갔다.

“엄마가 늘 그랬던 것처럼 나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가벼운 엄마의 신발이고 싶어요” 티에르와 에르베, 로랑은 내 엄마의 신발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



<어린이왕자>를 쓴 생텍쥐페리가 태어난 곳, 영화라는 것을 만들어 냈다는 루미에르 형제가 성장한 곳, 그래서 영화의 도시로도 불리는 곳, 프랑스의 리옹을 여행하며 쓴 책이다. 제목만 본다면 어느 유럽 여행기나, 생활기를 떠올리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는다.

앞서 소개한 글의 한 챕터는 그녀의 인생을 한 조각씩 떼어 놓았다. 평생 신발을 만들어온 신발 장인들,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자신의 삶을 더해 만나며

겪었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보들레르가 나를 불렀다.'는 작가의 말처럼 작가는 보들레르의 시를 원문으로 읽고 싶어 붙어 공부를 시작했고 훌쩍 리옹으로 떠났다고 소개한다. 그곳에 머물면서 긴 여행을 하며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많은 것들을 사진 속에 남겼다고 한다.

리옹의 전통 인형극 '기볼'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 신발 장인들,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 초콜릿 명가 베르나송의 역사, 모자를 만드는 사람 등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것이 머무는 곳, 그리고 리옹의 역사적 공간과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마치 함께 여행하는 듯 자세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소개하고 있다.

유명한 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다 만나지 못하는 그들을 인터뷰하고 조사하고 근사하게 찍은 사진으로 그곳을 소개하고 있다면 나는 큰 감동을 받지 못했을 것 같다. 작가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인생에 감동하고 자신의 삶을 꺼내놓고 그렇게 공감하고 나누며 특별히 작가에게 열어줄 수밖에 없었을 그들의 마음을 예술로 그리고 있었다. 작가의 글을 가만히 보고 있다면 저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예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하거나 할까하는 마음이 들만큼 빠져든다. 리옹이라는 도시에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의 모든 삶이 예술인 것이다. 물론 대단한 문호나 예술가들의 유적이나 장소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적어도 내가 보기에 작가는 그런, '삶 속에 녹여낸 예술'을 훨씬 더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다.

책 소개, 그 이후 이야기.

이제와 밝히자면 나는 이 작가와 '잘 아는 사이'다. 작가는 어린이를 사랑하고 그들이 특별하다고 믿는다. 아이들이 내쉬는 숨에도, 장난기 어린 표정에도, 골똘히 고민하지만 어김없이 허무해지는 대답에서도 감동을 받고 되새기고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루 종일 크게 웃는다. 누군가와 의 관계에서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하고 말하기에 웃는 것만큼 훌륭한 표현이 또 있을까? 그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웃음을 전염시키지만, 사실 작가는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에 앞서 그냥 웃는다. 행복하게. 매 순간 감동받기 때문일 거라 감히 예측한다. 작가는 여기, 꿈바당, 제주에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났다.

작가는 도서관 개관부터 얼마 전까지 제주의 아이들을 만나 함께 키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꿈바당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해 오다 지금은 또 다른 가치를 찾아 나섰다.

"요즘도 네가 만나는 모든 것에 감동하며 지내니?"

글의 서문에 실린, 리옹에서 만났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작가의 일상이 궁금해 편지에 전했었던 그 질문을 나도 작가에게 묻고 싶었다. 그러나, 시시하다. 백퍼센트, 그럴 것이므로. 매 순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감동하고 온 몸으로 그것을 전하며 살아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어린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는 '꿈이 뭐예요?' 같은 엉뚱한 질문을 수시로 던진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어쩌면 말로 표현하기에 쑥스러웠을 지도 모르는, 뭔가 근사한 답을 내놓고 싶은 '질문 받은 사람'의 삶에 '질문'을 남기고 부담을 거둬간다.

특이한 사람이구나 싶지만 만나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도 없지 싶다. 평범하고 어설픈 대답을 듣고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온 몸으로 칭찬해주듯,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칭찬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게끔 느낄 때까지 말하고 또 말해준다. 설득시킨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통통 튀고 발랄하고 따뜻한 사람이지만, 무겁고 진지하고 엄격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작가의 글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사실, 책보다 작가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써버린 이유는 이 책을 통해 작가의 인생과, 세상을 보는 결이 고운 시선을, 그리고 위로를 선물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명 '나'에게 있어 작가처럼 힘을 주는 사람을 가졌을 것이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가는 또 어디론가 예측 못할 순간에 떠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곳에서 세상을 채우고 있을 것이다. 나는 작가가

만난 다른 삶과 도시의 이야기가 기대된다. 소개하는 글을 써보아지 하고 <리옹, 예술이 흐르는 도시>를

다시 읽고 나서는, 그녀의 다음 책을 어서 읽고 싶어서라도 지구 어딘가 보내고 싶지만 실은 또 멀리 있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는 오늘이다.

-열람실담당 변아영 사서-



도서 전시 소식

6월 도서 전시는 '민주주의', '선거'를 주제로 투표,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등의 개념을 이야기로 풀어낸 도서 30여권을 선정하였습니다.

6월 프로그램 주제인 '바람'과 연계하여 '우리의 바람(wish)', / '민주주의 바람(wind)'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자존감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 나아가 세계의 주인이 되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꿈바당 프로그램

6월의 프로그램

꽃바람, 하늘 바람 가득한 6월

6월의 주제는 '바람'입니다. 불을 간지럽히며 부는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치러지는 달이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이 있는 달이기도 하지요.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여러분은 시원한 하늬바람, 평화의 바람이 느껴지나요?^^



생각이 팡팡! 글쓰기가 쑥쑥

도서관에 붙어 닥친 글바람!!

3월부터 시작된 글쓰기 수업 『생각이 팡팡! 글쓰기가 쑥쑥』 문학놀이 프로그램이 6월이면 막을 내립니다. 넉 달 동안 아이들은 생각이 커지고 깊어졌으며 '글 읽는 아이'에서 '글 쓰는 아이'로 한뼘 성장했습니다. 7,8월은 '바다'를 주제로,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온갖 생명이 꿈틀거리는 바다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고래가 되어 볼까요? 도서관의 글쓰기 수업은 하반기에도 쭉~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



민오름, 다시 또 봄

자연 느끼기, 자연 만지기!

꿈바당은 친구가 많습니다. 정원에는 온갖 꽃, 나무, 풀 들이, 바로 옆에는 든든한 형 같은 민오름이 맵시를 뽐내느라 바쁩니다. 거기에 뒤질세라 숨씨가 멋들어진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꽃다발, 낙엽나무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나쁜 공기, 나쁜 소리에 지치셨나요? 자연책과 함께 하는 숲길 나들이 어떠세요?^^

한자로 풀어보는 24절기 이야기 _
망종이랑 하지랑

‘너무 바빠서 오줌 놀 시간이 없네~!’

밭에선 보리 베기가 한창이고 논에서는 모내기에 정신이 없는, 농사일이 가장 바쁜 시기 '망종'과
관련해서 생긴 속담입니다.

너무 바쁜 '망종'과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를 지혜롭게 보내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방법 한번 배워볼까요?

한자 읽기를 통해 익히가는 언어의 재미, 하늘 읽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의 개념.



책 읽어주세요~

매주 토요일 11시, 꿈바당의 그림책방은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웃음으로 북적북적
합니다.

읽어주는 어른, 듣는 아이, 서로에게 배움이 싹틔입니다.

프로그램 명	일 시	장소 및 횟수	대상 및 인원
<생각이 팡팡!글쓰기가 쑥쑥> _넌 기적이야! 4	6/8,15,22,29(금) 16:00~18:00	세미나실 (4회)	초등 1~2학년 (20명)
<생각이 팡팡!글쓰기가 쑥쑥> _하늘을 나는 코끼리(象) 4	6/8,15,22,29(금) 16:00~18:00	프로그램실 (4회)	초등 3~5학년 (20명)
민오름, 다시 또 봄 4	6/23(토) 14:00~16:00	세미나실 및 민오름 (1회)	7~8 가족 (6세 이상)
한자로 풀어보는 24절기 이야기 _망종이랑 하지랑	6/9,16(토) 14:00~16:00	프로그램실 (2회)	초등 2~3학년 (20명)
명사가 읽어주는 그림책	6/9,23(토) 16:00~16:30	그림책방 (2회)	6~7세 (현장접수)
책 읽어주세요!	6/2,9,16,23,30(토) 11:00~12:00	그림책방 (3회)	4~6세 (현장접수)





도서관과 사람



6월에는 작가를 꿈꾸는 신가윤(10살) 어린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학이란 기쁨 때도 슬픔 때도 나와 놀아주는 친구라고 말하는 가윤이.

가윤이가 추천하는 책은 '플라스틱 섬' [꿈자람책방 813.8-이34ㅍ]이라는 동화책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때문에 동물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돌아보게 해주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책이라고 하네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이하 꿈):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 어떻게 처음 왔어요?

가윤: 엄마께서 꿈바당도서관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때 처음 와봤어요.

꿈: 책은 꼭 읽어야 할까?

가윤: 책은 우리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똑똑하게 해주어요. 노는 것도 좋지만 책을 읽으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꿈: 가윤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린이들을 위해 어떤 걸 해주고 싶어요?

가윤: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아이들이 더 멋지게 크기 위해 도서관을 많이 지을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자연백과' 시리즈를 만들 거예요.

5월호 인터뷰 주인공이었던 안우진 어린이의 릴레이 질문은

'나중에 되고 싶은 것은?' 이었는데요, 신가윤 어린이는 '소설 작가'가 되고 싶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떡볶이를 좋아하는 가윤이는 다음 인터뷰 할 친구에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물어봐달라고 하네요.

어린이 작가 가윤이가 쓴 베풀베풀한 글을 한 편 소개합니다. "생각이 팡팡 글쓰기가 쑥쑥 _ 하늘을 나는 코끼리"라는 꿈바당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쓴 작품입니다.

제목: 아브라카다브라!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이야기.

옛!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할게.

화창한 날씨, 언제나 단짝인 무당벌레 두 마리가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날이었어.

둘은 어린이집부터 단짝이었는데, 하늘이 그 일을 알았는지 학교에서도

같은 반을 해주었지. 장난꾸러기인 무당이와 무당이를 돌봐주고 감싸주는 무당이는

같은 반이 되어 기뻐했어. 하지만 자기소개를 할 때 무당이는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

왜냐하면 무당이의 점 하나가 이상했거든. 무당이가 무당이 잡까지 가서 달래주었지만, 무당이의 마음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어.

그렇게 시무룩하게 지내던 어느 날, 학교에 가던 중 이상한 종이가 바람에 날라와 무당이의 얼굴에 척하고 붙었어. 짜증나긴 했는데, 궁금해서 한 번 보았지. 종이에는 마녀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

“외모에 신경이 쓰이는 무당벌레는 개구리눈동자도롱뇽발톱구리구리로 오길 바람!”

이라고 쓰여 있었지.

그날 무당이는 캄캄한 밤에 몰래 밖으로 나왔어. 마녀가 무섭긴 하지만 친구들에게 놀림 받는 것보다는 나았지.

그래서 개구리눈동자도롱뇽발톱구리구리로 갔지. 많이 으스스 했어.

마녀는 무당이가 오는 줄 알았는지 계단 아래서 반기고 있었어. 무당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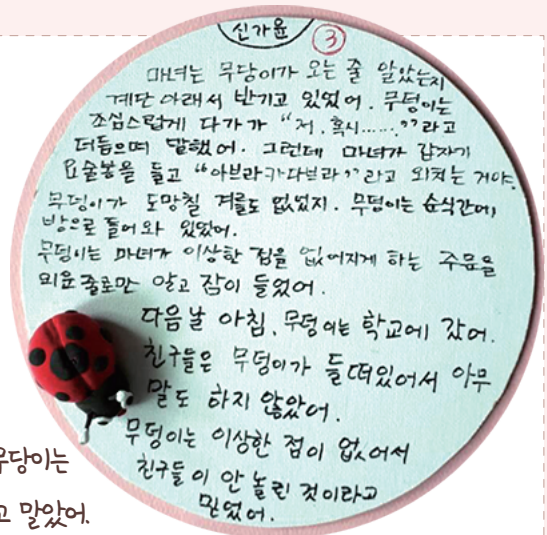
“저, 혹시.....” 라고 더듬으며 말했어. 그런데 마녀가 갑자기 묘술봉을 들고 “아브라카다브라” 라고 외치는 거야.

무당이가 도망칠 겨를도 없었지. 무당이는 순식간에 방으로 들어와 있었어.

무당이는 마녀가 이상한 점을 없어지게 하는 주문을 외운 줄로만 알고 잠이 들었어.

다음날 아침, 무당이는 학교에 갔어. 친구들은 무당이가 들떠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무당이는 이상한 점이 없어서 친구들이 안 놀린 것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때, 거울을 보았어. 무당이의 등에 이상한 점이 있었던 거야. 무당이는 마녀에게 다시 갔지. 마녀는 무당이를 보고 “무당아, 주문을 다시 걸려고 왔지? 하지만 그 동안에도 네 점은 항상 그대로였단다. 네 점은 항상 멋진거야.” 그 말을 듣고 무당이는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만들어 하트점을 만들었대.

무당이 이제는 정말 멋지대. 야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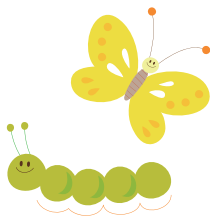


공감,공간



제주의 도서관 노형꿈틀작은도서관

명칭: 노형꿈틀작은도서관
대표: 장동훈
주소: 제주시 노형로 351
전화: 064-748-2611
홈페이지: <http://www.꿈틀작은도서관.kr:8080/>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노형꿈틀작은도서관은 제주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작은도서관이며,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꿈틀'이라는 명칭은 애벌레가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모습, 꿈을 담는 그릇, 꿈이 커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노형꿈틀작은도서관에서는 자원활동가 모임이 10년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꿈틀사랑독서회>, <출람생이 극단>, <울랄라 통기타 봉사모임>, <S.T과학동아리>은 도서관 안에서 친해진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들은 정기적으로 소외계층을 찾아다니며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를 제주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자라는 어린이들도 책 속 지식을 넘어, 공동체와 나눔이 어떤 의미인지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2008년 7월에 개관하여 이제 10살이 된 노형꿈틀작은도서관은 2018년 7월 14일 생일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형나영 책사랑'이라는 개관 10주년 축제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책과 함께하는 도민축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아름다운 날갯짓을 지켜봐주세요!



제주의 책방 에이팩토리 커피앤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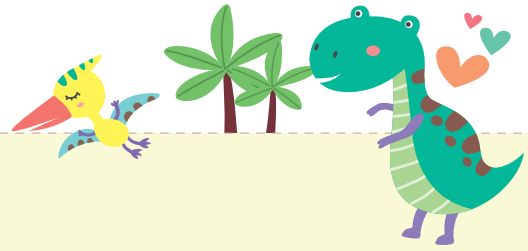
명칭: 에이팩토리 커피앤박스
주소: 제주시 탐도로 11, 3층
전화: 064-720-8222

창문너머 제주 바다와 야자수, 그리고 여러 독립서점의 자체 큐레이션을 만나볼 수 있는 북카페, 제주탐동에 위치한 '에이팩토리 커피앤박스'입니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옛 건물 계단을 올라 3층에 들어서면 감성적이지만 편안함을 잃지 않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독립서점은 쏟아지는 수많은 책 가운데, 고심하여 고른 타인의 취향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커피앤박스에서는 제주의 라이킷 외 육지의 여러 독립서점들과 함께 선정한 다양한 책 2,000여 권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색깔별로 서가를 구분하고 책에 부착된 띠지까지 통일하여 부착한 디자인의 세심함이 보입니다. 제주의 초 여름밤, 고기잡이배의 불빛이 환히 비치는 탐동 광장을 산책하며, 책 한권의 여유까지 느껴보세요.

※에이팩토리와 함께 공간을 꾸민 독립서점: 씨월드 워드 라이킷(제주독립출판), 사이에(여행테마), 책책(실용도서), 페이퍼뮤즈(해외잡지), 라이너노트(음악전문), 베로니카 이펙트(성인을 위한 그림책), 스토리북 북앤필름(독립출판물), 책방서로(국내소설), 미스터리 유니온(추리소설)



시시콜콜 뉴스



공룡 책장

그림책방에는 공룡 책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기가 아주 많아 공룡책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일쑤입니다. '6,600 만 년 전 멸종한 공룡이 현대인을 이토록 괴롭히다니' 탄식하며 꿈바당 직원들은 오늘도 책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공룡책에 푹 빠진 어린이가 멋진 학자가 되어,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서 꿈을 키웠노라고 인터뷰할 먼 훗날의 일을 그려보며 힘을 내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유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주제를 정하여, 주제별 책장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대다수 공공도서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한국십진분류표를 넘어 이용자의 흥미와 동선을 고려한 책장을 만들 예정이오니, 그림책방의 변화를 지켜봐주세요!



신나는 예술여행 공연

2018 신나는 예술여행 공연이 6월 2일 오후 2시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야외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제주의 5인조 인디밴드 스테이플러가 도서관 잔디밭에 삼삼오오 돛자리를 펼친 가족들 앞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스테이플러(StayPulley)는 특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의 '스테이(STAY)'와 끌어당기는 사람을 나타내는 '풀러(Puller)'가 더해진 이름으로 '우리의 음악이 정지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끌리게 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아 지어졌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편안히 앉아 음악을 듣고, 아이들은 마구마구 뛰어다녔던 오후의 봄날이었습니다.



프리와 키타

매주 토요일마다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서 프리와 키타가 자원봉사를 시작합니다. 프리와 키타는 제주의 여러 고등학교 학생들이 연합한 자원봉사 동아리입니다. 6월 2일 처음으로 만난 날, 꿈바당 세미나실에서 양민숙 팀장과 변아영 사서가 도서관 자원봉사에 대해 교육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림책방에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보조, 서가 정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용자를 도울 예정입니다.

보람과 흥미를 잃지 않도록, 앞치마를 입은 자원봉사자 청소년들을 도서관에서 마주치면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옮겨심기 (transplantation)

꿈바당 화분 물주기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팀 김주미님이 화분에서 시들시들해진 로즈마리를 동백낭 밑 바위 옆에 옮겨 심었습니다. 로즈마리는 바다의 이슬이라는 멋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옮겨심기는 식물에게, 또한 사람에게도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더 크고 풍성하게 자라기 위해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합니다. 좁은 화분에서 벗어나 뿌리를 마음껏 뻗어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만나볼까요?



돋보기안경이 왔어요

손주와 함께 도서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돋보기안경을 비치하였습니다. 사실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손녀와 손잡고 오신 할아버지께서 돋보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주셨습니다. 데스크와 꿈자람 책방 두 곳에 있으니 편하게 사용해 주세요. 동화책을 읽어주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대 간의 소통을 꿈꾸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서 시시콜콜하게 전해드렸습니다.

